

House & People Housing Message

2006년도 시무식

협회는 지난 1월 2일 (월) 협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방주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06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둡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 한해 내수경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시장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때 일수록 협회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회원사들의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힘써 회원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택관련 현안사항을 시민단체에 홍보하는 등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회원에게 봉사하는 협회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서 이 회장은 주택산업 발전과 건설교통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열 제도1팀장에게 건설교통부장관표창을 전수하였고 2005년도 한 해 동안 협회내 우수사원으로 뽑힌 제도1팀에 근무하는 이대열 대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주택건설인 송년리셉션 개최

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이방주 협회장을 비롯한 민경조 부회장(코오롱건설 사장), 신 훈 부회장(금호산업 부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 이규방 협회 고문, 최재덕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장동규 한국감정원 원장, 박성표 대한주택보증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인 송년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회장은 송년사에서 "올해는 주택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한 해였다"며 "부동산 열풍과 이를 잡으려는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원가연동제 실시와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이어진 수요억제 대책이 쏟아져 나와 민간주택산업의 시장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우리협회 회원사는 연간 50만호의 정부의 주택건설목표 중 20만호를 건설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금년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요억제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쳤으나 이러한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내년에는 정부정책이 주택공급확대로 전환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설산업연구원 최재덕 원장과 장동규 한국감정원 원장의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택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자축하고 내년에도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축하공연에는 가수 이자연씨가 출연하여 대표곡인 '찰랑찰랑'과 '당신의 의미' 등을 불러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택건설인 송년 리셉션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윤오수 상근부회장, 헤럴드경제 그린주거문화대상 시상식 참석

현대건설 '건교부장관상', 현대산업개발 '우수경영대상' 영예

헤럴드경제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우리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후원하는 제 5회 그린주거문화대



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5일(목)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을 비롯한 윤오수 우리협회 상근부회장, 이지송 현대건설(주) 사장 및 수상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리협회 윤오수 상근부회장은 주상복합대상의 SK건설, 오피스텔대상의 동양고속건설, 쇼핑몰대상의 갑을건설, 아파트형공장대상의 한국토지신탁 등 4개 부문에 걸쳐 수상 업체에 시상을 하였다.

한편, 금번 제5회 그린주거문화대상에서는 현대건설과 동일토건이 영예의 종합대상을 차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산업개발과 대동주택이 우수경영대상을 받는 등 총 26개 업체가 부문별 대상을 받았고 대한주택공사의 수원 망포 영통 트란채 등 4개 업체의 입주 아파트가 최우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로 각각 선정되었다.

■ 우리협회 회원사 수상업체

구분	업체명	구분	업체명
건설교통부장관상	현대건설(주)	우수조경대상	(주)현진
우수경영대상	현대산업개발(주)	상품개발대상	(주)대우건설
	(주)대동주택	친환경설계대상	대림산업(주)
마케팅대상	성원건설(주)	A/S우수대상	동부건설(주)
	쌍용건설(주)	홈네트워크대상	삼성물산(주)건설부문
고객만족대상	(주)한화건설	주상복합대상	SK건설(주)
우수시공대상	롯데건설(주)	오피스텔대상	(주)동양건설산업
	동문건설(주)	베스트관리	경남기업(주)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운영홍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오수 신임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운영홍보위원과 회원사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재임기간동안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품위보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 업그레이드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추



진현황과 구도심권 광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입주자 보호·사이버건본주택 전시와 인터넷 청약 활성화 등 주택공급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하였고, ‘주택건설인 송년 리셉션’ 행사에 회원사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홍보위원들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 허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주택법에 명칭변경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칭변경을 허용해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5년도 종무식

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금) 협회 회의실에서 2005년도 종무식을 가졌다.

이날 종무식에 앞서 윤오수 상근부회장은 임직원에게 메일로 전달된 송년사에서

“올 한 해 8·31 대책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연초 목표로 내세웠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준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원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품위보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윤 상근부회장은 12월 서울 국제부동산 세미나와 주택건설의 날 행사 그리고 주택건설인 송년리셉션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2005년도 한해동안 협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일들 중 주택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 원활한 주택건설산업 추진을 위한 주택정책·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주택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여 주택산업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 주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주택전시관 입점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발전과 건강을 그리고 꿈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송년사를 맺었다. HJ

